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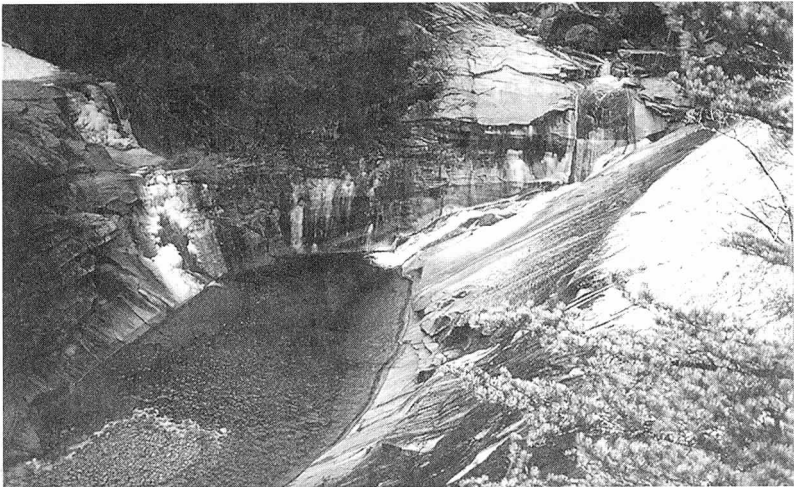
# 삼일포에 아쉬움 남기고

서 정 수

〈한국자연보전협회 사무총장·산림생태학〉



50여년만에 그 비경을 공개한 금강산 관광길을 지난달 18일부터 4박 5일간에 걸쳐 다녀올 수 있는 행운이 있었다. 옛 부터 금강산 절경을 제대로 보려면 내 외금강을 합쳐 스물두곳이나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금번 초행길은 외금강 두곳과 해금강 한곳, 그리고 삼일포만을 볼 수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분단의 비애를 같이 느낄수 있는 처지에는 들지만 이산의 아픔은 없는지라 못사람들과의 감회는 껍이나 다르리라 생각 되어지지만 우리의 명산이며 소중한 자연의 보고를 볼 수 있다는 기대는 그 누구 보다도 더한 설레임으로 가득찬 바로 환희였다.

첫날 만물상 가는길, 장전항 남안 부두 주차장에서 시작된 북한에서의 첫날 여행에 모두들 들뜬 기분이다. 금강산 전용도로로 온정천이 있는 온정리에 다다랐다. 금강산호텔, 금강산의 초



입임을 알린다. 설악산이나 경북 봉화에서 보아왔던 금강소나무가 온정천과 신계천 물가 옆에서 빼어난 위용을 자랑한다. 백팔굽이 시작되는 온정령은 웬지 좁고 경사가 심하여선지 위태롭게 느껴진다. 아니나 다를까, 응달에 언 얼음층에 버스가 헛돌아 얼른 바퀴에 돌을 괴고 난뒤 다시 오른다. 아마도 겨울철 이 코스는 무리일듯 싶다. 그러나 위험 하기는 해도 마음은 포근하다. 그 혼한 아스팔트 포장길이 아니고 그나마 오래된 시멘트로 만든 영성한 길이였기 때문이었을게다. 도로 좌우에는 깎아지른 봉우리들이 솟아있어 창에 머리를 대고 위를 쳐다 보아야만 겨우 볼 수 있다. 오르는 길 왼편은 하관음, 중관음, 상관음으로 이어지는 관음연봉이며 오른편은 수정봉과 문주봉 줄기이다. 이중 상관음봉은 높이가 1,132m이고 수정봉은 773m에 달하니 좁은 협곡을 돌아 돌아 오르게 된다. 한하계(寒霞溪), 문주담(文珠潭), 관음폭포, 만상계(萬相溪), 세지봉(1,041m)을 거쳐 만물상의 입구격인 만상정에 이른다.

만상정, 삼선암, 귀면암, 칠층암, 절부암, 안심대 등과 함께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만물상 암석의 대부분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바, 억겁의 세월동안 모진 풍화 침식작용을 겪고난 뒤 이루어낸 자연의 오묘하고 경이로운 산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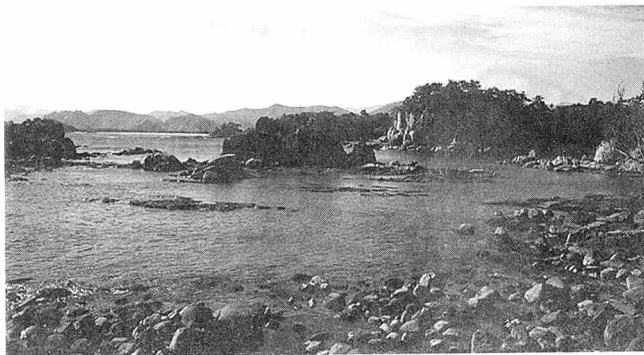
아무리 숙련된 조각가가 만들려해도 저토록 변화무쌍한 자태들을 재현해 낼



수 있을까? 돌이, 바위가, 나무가 어우러져 넓디넓은 병풍의 흉상으로 의연히 자리잡고 있었음엔 반세기동안 감추어온 비경을 꼭은 우리네에게 한번 보이고 싶었음직한 기대도 있었던 모양같다.

둘째날 구룡폭포 가는길, 신계사터를 거쳐 목란관부터 시작되는 곳곳의 풍광은 섬섬옥수로 이어진다. 양지대, 삼록수, 금강문을 통과하여 옥류동, 무대바위, 연주담, 비봉폭포, 구룡폭포, 상팔담으로 펼쳐 이어지는 소(沼)와 폭포의 장관은 계절을 잊은듯 연신 고이고 또 설새없이 흐르고 있다. 특히 구룡폭포 가는길에는 비로봉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여 만든 옥류동의 비경이 있어 과히 금강산의 선경(仙境)으로 손 꼽힐만 하다. 구룡폭포의 장엄미, 비봉폭포의 경이로움, 선녀와 나무꾼이 살았던 전설의 상팔담 등, 굳이 이름 지어짐이 없어도 모두 금강의 비경들일 뿐이다.

셋째날 해만물상 가는길, 섬듯한 철조망 길로 들어서서 그 옛날 우리가 살았던 시골길을 따라 나선지 몇 십분, 검푸른 바다위에 하늘을 치받고 있는 작은 기암 괴석들, 금강산 줄기 하나 동해에 닿아 놓고, 바닷가 모래밭엔 해당화 꽃심



털고 머리 숙인채 누군가의 그리움에 남녘을 향해 있다. 남쪽 향한 해송 가지 사이로 고성 of 통일전망대가 보일듯 말듯 한다.

삼일포(三日浦)는 원래 조선시대 문필가 봉래 양사언의 호를 따서 봉래대로 이름지어 졌으나 김정일 노동당총비서의 생모인 김정숙이 이곳에서 삼일을 쉬어갔다고 해서 삼일포로 불린다는 이야기도 있다. 둘레가 8km, 호수의 깊이가 9~13m에 바닥의 모래가 샘물처럼 흰히 들여다 보일 만큼 깨끗하다. 호수 주변부는 생생한 해송이 무리지어 울창하고 계단따라 오른 장군대에서는 호수 속에 외롭게 자리튼 와우도와 함께 절경을 느낄수 있다. 다시금 공중다리를 건너 서면 조선시대 문필가 양사언의 호를 딴 봉래대에 이르러 잔잔한 호수가 더 넓게 한 눈에 든다.

돌아와야 만 하는 길, 짧은 삼일간의 여정으로는 반 세기의 한을 보상 받을수 없다는 절절한 아쉬움에 곳곳에서 소리죽인 오열이 인다. 들떴던 설레임은 간곳없고 또 길 회환(回還)에 가슴조려 든다. 하나 다행스러움이 있다면 아직껏 어느 한 곳도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안도감 뿐이었다.▲▲

